

오레곤에 계신 서울대학 동문 여러분,

다 무고하시리라 믿습니다.

1. 서울대 오레곤동문회 Forum 인 Zoom Table 세미나 시리즈 제 4 차 강연이 지난 5 월 21 일 (토요일) 있었습니다.

PSU 장 희준 교수의 강연에, 오레곤에서 오신 7 분, San Diego 의동문 1 분등 , 연사포함 모두 9 명의 참석자가 있던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연사를 비롯 동문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아주신 오레곤동문 그리고 오신 타주동문, 감사드립니다.

오레곤 지역 참석자들 (존칭생략): 한국남(공대 57), 김성열 (치대 61), 전병택 (상대 65), 김기린 (사대 75), Dr. CR Kim (김기린 동문 부군), 박희진(농대 78), 박혜선 (자연대 79), 장희준(사회대 90)

기후온란화의 여파로 인류생존의 자원에 비상이 걸려있고, fresh water 자원의 확보가 전세계적으로 큰 관건이 되고있는데, 이 분야를 20 년이상 연구해온 PSU 의 장희준교수가 그동안 오레곤의 기관과 함께 수행해온 수 많은 연구 결과를 알기쉽게 정리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많아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 이 오레곤에서도 기온 상승으로인한 수자원의 확보와 생태계의 영향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는, 세미나에서 보여진 여러가지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해 바닷물을 삼투압시켜 식수로 일부 사용하는 샌디에고에서 오신 **손 명세 동문**도 오레곤의 물을 끌어오고싶다랄 정도인 상황을 부연하셨습니다.

강연을 녹화했으니, 관심있는 동문은 밑 link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1drv.ms/v/s!AtwYr1_PMKEpgtMzg-AJSzeOmc8KXQ?e=9Zw9Ug

2. 오레곤 Zoom Table 제 5 차 강연이 6 월 11 일 토요일 10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 한국남 교수님의 이 강연은, WA 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10 시부터인 점을 유의하시고, zoom Link 는 WA 에서 정보가 오는 대로 추후에 공고하겠습니다.//

일시: 6 월 11 일 (토요일) 오전 10 시 (서부시간), 그 후 자유대화시간
연사: 한 국남 박사 (공대 57), 명예 교수, SD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제목: 희토류 자원 이야기

한국남 교수님은: 전공분야에 교과서도 쓰신 大 공학자이시면서 시인같은 문필력*의 한 교수님은 은퇴한지 꽤 오래된 지금도 학술저널에 논문을 쓰시며, 유명 저널의 Editor-in-Chief 등의 학술활동을 계속하십니다. 이런 한 교수님의 희토류에 관한 세미나는, 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와 더불어, 차세대 기술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희토류를 우리 모국 한국은 어떻게야 하는지가 관건인 이때, 정말 시기 적절한 세미나가 아닐수없습니다. (*한 교수님의 시 한편을 첨부합니다.)

한국남 교수님 그리고 강연 요약



“인류 문명 발전 역사를 보면 서기 6,000 년 전 인간은 집을 짓고 농작을 시작하였으며 서기 3,000 년 전에는 에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등 문화 발전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자원 개발 산업은 서기 500 년 전 그리스에서 시작된 역사적 증거가 있으며 이렇게 금속은 인류 문명 발전 공헌에 절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온 것이며 앞으로도 금속은 우리 문명 발전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는 바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희토류 금속의 세계적

근황을 검토하고 그 분포 및 채취에 기술, 환경 및 경제적 문제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특히나 저품위 희토류광석 처리의 필요성, 방법, 신기술의 근황, 친환경 채취 방법의 필요성, 및 end-of-life cycle 의 재활용의 신기술 개발 및 문제점에 관한 세계 정세를 검토할 것이다.”

3. 지난 3 차 강연의 연사이셨던 유지선씨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의 감사의 뜻의 편지.

감사의 뜻과 함께 오레곤 동문 누구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부담없이 알기쉽게 설명드릴다하니, 혹 동문중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유지선씨의 편지 (pdf)를 첨부하니, 연락처는 그곳에 있습니다.

4. 미주 총동창회 Web Site 속 오레곤지부 web Page 가 개설되어, 지난 뉴스레터등을 볼수있고, Bulletin board 등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http://snuua.org/main/oregon-chapter/>

5.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 (6 월 24- 26 일)

제 31 차 미주 동문회 평의원회의가 미국 LA Pacific Farms Resort 에서 한국에서 오세정 총장과 김종섭 총동문회장등 여러분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올해 동창회 평의원회에 오레곤 참석자가 없습니다.

6. 한국과학 기술 한림원 (회장 유 옥준 박사)의 세미나 시리즈

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시리즈인 한림원탁토론회의는 모국인 한국의 과학 방향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 시리즈입니다. 세미나 일정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 한림원 정회원이신 오레곤의 한국남 교수님 (공대 57)에게 문의하시면(동문명부참조) 그 세미나 시리즈의 일정을 알수있습니다.

7. 동문 소식란 입니다.

여기가 동문 소식 알리는 칸입니다. 동문들에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을때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 실어 알리는 장으로 삼겠습니다.

- **오레곤에 새로 온 임 종흔 동문을 환영합니다.**

서울대 공대 화공과 94 학번인 임 동문이 이곳 Intel 로 오게되어, 오레곤 지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참 반가우며 환영합니다. (jongheun21@gmail.com, 209-770-9949)

- **오레곤의 광경을 찍은 비디오를 공유합니다.**

박 희진동문이 (농대 78)은 drone 을 이용하여 오레곤의 아름다움을 지인에게 전하러, 오레곤 해안, park, 오레곤 동네, 그리고 local sports complex 를 담은 비디오들을 동문들과 share 합니다. 밑의 첫 비디오 link 이며, 그 속에 다른 비디오 link 가 있습니다. <https://youtu.be/u1sKeS38Zy8>

8. 다음은 다가 올, Zoom Table 대화 시리즈 일정입니다. Link 는 차후 광고시 보내드립니다.

- 7 월 16 일 (토요일) 오전 11 시: 이 정희 교수 (문리대), 교수, Portland State University
“한국/일본/중국, 삼국 문화의 차이와 특징,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어떤 면이 다른 것인가”

- 8 월 20 일 (토요일) 오전 11 시: 김 왕도 교수* (공대 75), 교수, Universidad de Ingeniería y Tecnología (UTEC), Lima, Peru (* Oregon alumnus)
“페루 이야기- 잉카 후에 페루의 역사, 도시, 풍속, 페루에서의 생활과 teaching”

건승하기 바랍니다.

박희진

SNUAA-Oregon 지부회장

Jan 2022-Dec 2022

Heejin Park, Ph.D., P.E.

Flonomix, Inc

hjpark@flonomix.com

Tel: 503.648.0775

Fax: 503.648.0777

www.flonomix.com